

단축형 종결 욕구의 타당화

김은경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Validation of the Need for Closure Scale-Short Form

Eunkyung Kim

Department of Psychiatry,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인지적 종결 욕구를 측정하는 단축형 종결 욕구 척도(NFCS-SF: Need for Closure Scale-Short Form)를 타당화하기 위함이었다. 참가자들은 인지적 종결 욕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우울과 불안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017년 5월~7월 동안 수집된 536개의 자료 중, 총 495명의 참가자의 자료를 SPSS 20.0과 M-Plu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하위 영역에서 3문항을 선정하여 15문항의 NFCS-SF를 구성하였다. 둘째, NFCS-SF의 내적 일치도가 양호했다(연구 1, Cronbach's $\alpha=.85$; 연구 2, Cronbach's $\alpha=.84$). 셋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요인 구조가 지지되었다($\chi^2(80)=178.34$, $p<.001$, CFI=.87, TLI=.83, RMSEA=.07, SRMR=.08). 넷째, NFCS-SF는 NFCS($r=.86$, $p<.01$) 뿐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r=.58$, $p<.01$), 우울($r=.16$, $p<.05$)과 불안(상태 불안, $r=.31$, $p<.01$; 특성 불안, $r=.29$, $p<.01$) 척도와의 상관성이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 및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토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validate the Need for Closure Scale-Short Form (NFCS-SF), which measures the need for cognitive closure. Participants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need for cognitive closure, intolerance of uncertainty, depression, and anxiety. Of the 536 data collected between May and July 2017, data from a total of 495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and M-Plu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15-item selection comprised three items from each facet scale vi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econd, the NFCS-SF demonstrated good internal consistency (Study 1, Cronbach's $\alpha=.85$; Study 2, Cronbach's $\alpha=.84$). Third, the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supported a 5-factor model ($\chi^2(80)=178.34$, $p<.001$; CFI=.87, TLI=.83, RMSEA=.07, SRMR=.08). Fourth, the NFCS-SF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measures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r=.58$, $p<.01$), depression ($r=.16$, $p<.05$), and anxiety (state anxiety, $r=.31$, $p<.01$; trait anxiety, $r=.29$, as well as the NFCS ($r=.86$, $p<.01$). Based on these finding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results as well as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 Need for Cognitive Closure, Need for Closure Scale, Need for Closure Scale-Short Form, Reliability, Validity

*Corresponding Author: Eunkyung Kim(Department of Psychiatry,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email: aidaworld@hanmail.net

Received June 30, 2020
Accepted October 5, 2020

Revised August 26, 2020
Published October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지적 종결 욕구(Need for Cognitive Closure)는 정보처리와 의사결정에 대한 동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바라고 모호함을 회피하고 싶은 욕구이다[1]. 따라서 인지적 종결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모호한 상황에서 얻어진 답이 모호함을 감소시켜 준다고 여겨지면 정답이 아닐지라도 거기에서 더 이상의 정보 탐색을 멈추고 그것을 최종 해결책으로 결론짓는다. 뿐만 아니라 모호함을 해소시켜 준다면 부정적인 소식일지라도 무소식 보다 선호한다. 인지적 종결 욕구는 연속 선상의 개념으로, 한쪽 끝은 종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반대편은 종결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또한 이 욕구는 개인차가 있는 기질적 요인인 동시에, 소음, 시간의 압박, 피로도와 같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 상승하는 상황적 요인이다[2].

Webster, Kruglanski는 인지적 종결 욕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를 대표한다고 생각한 5개의 특성을 반영하여 42 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인 종결 욕구 척도(NFCS: Need for Closure Scale, 이하 NFCS)를 개발하였다[3]. 각 하위 척도는 질서 및 구조화에 대한 선호(preference for order and structure), 예측가능성에 대한 선호(preference for predictability), 결단성(decisiveness), 모호함으로 인한 불편감(discomfort with ambiguity), 폐쇄성(close-mindedness)이다. 즉, 인지적 종결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구조화되고 질서정연한 삶을 바라고, 예측가능성을 선호하여 어떤 상황에도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추구한다. 또한 결론을 빠르게 내리길 원하여 결단력이 높고 자신의 결정을 강하게 확신하며, 종결을 하지 못한 모호한 상황을 꺼려하고 불편감을 느끼고 이를 떨치고자 결정한 것에 대해 다른 대안을 고려하거나 불일치하는 근거가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NFCS가 개발된 이후 경영,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문항 수가 너무 많아 연구에 사용하기에 제한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여러 단축 척도가 개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Roets, Van Hiel[4]은 이러한 단축형 척도가 임의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NFCS의 하위 요인인 결단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인지적 종결에 대한 동기를 반영한 욕구라기보다 인지적 종결 능력을 측정한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문항들로 기존의 결단성 문항들을 대체하여 단축형

NFCS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단축형 NFCS에 대한 연구자들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요인구조가 단일 요인[1,5]과 5요인[2,3]으로 다르게 보고되고 있어, 구성 타당도 역시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듯 NFCS의 문항 수가 많고 단축형 NFCS 역시 일관성이 부족하며 기존의 NFCS와 NFCS의 척도들의 구성 타당도 역시 미흡하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NFCS의 타당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표본에 적합한 단축형 NFCS를 구성하고 타당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한편, 인지적 종결 욕구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불확실성에 대한 선호와 관련된다.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인지적 종결 욕구가 종결을 추구하느냐 피하느냐의 연속성 차원의 동기적 요소라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불확실성이 개인에 미치는 불안이나 걱정과 같은 심리적 결과에 초점을 둔다[6].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부족할수록 인지적 종결 욕구가 상승되어 종결을 내리고 싶어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우울, 불안 등 심리적 고통감을 경험할 수 있겠다. 이는 인지적 종결 욕구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우울, 불안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로 지지된다[7,8]. 하지만 이 척도의 타당화 과정에서 대개 정신병리와 관련한 공존 타당도를 살펴보고 있지 않아, 정신건강 관점에서 인지적 종결 욕구를 활용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 드물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Webster, Kruglanski[3]의 NFCS를 검토하여 국내 표본에 적합한 NFCS-SF를 구성하고 타당화 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또한 NFCS-SF와 정신병리와 관련된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공존 타당도를 확보할 뿐 아니라 임상 장면에서 인지적 종결 욕구를 활용한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 1: NFCS-SF의 문항 선별 및 신뢰도

연구 1에서는 NFCS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NFCS-SF의 문항을 선별하고, 이렇게 구성된 NFCS-SF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2.1 연구방법

2.1.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7년 5월~7월 동안 강원도와 충청도 소재의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자료 수집과 활용에 동의를 요청하였다. 참가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Comrey, Lee는 요인분석 시 적절한 표본의 크기를 최소 200이라고 제안하였다[9]. 이러한 표본 수에 대한 제안과 이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모두 실시함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과 활용에 동의한 참가자 536명에게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그 가운데 무응답 등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총 495명(남 111, 여 381, 무응답 3)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0.60세(SD=2.44)였다. 전체 자료의 대략 50%를 무작위로 나누어, 연구 1에 260명(남 57, 여 203)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그들의 평균 연령은 20.65세(SD=2.30)였다.

2.1.2 연구도구

2.1.2.1 종결 욕구 척도

Webster, Kluglanski[3]는 인지적 종결 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42문항의 종결 욕구 척도(Need for Closure Scale)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호함을 회피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리려는 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4였다.

2.1.3 자료분석

통계 분석은 SPSS 20.0로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또한 NFCS-SF의 문항 선정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2.2 연구결과

2.2.1 탐색적 요인분석과 NFCS-SF 문항 선별

각 문항의 왜도(-.52~.31)와 첨도(-.72~.31)를 살펴본 결과,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Table 1에 제시하였듯이, 가장 최근에 단축형 NCFS를 개발한 Roets, Van Hiel[4]의 방식대로 요인 수를 1로 고정하여 주축분해기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먼저 자료의 적합성 검증 결과, KMO 표준 적합도는

.80이었고, Bartlett 구형성 검증치는 4121.62($p < .001$)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재확인하였다. 다음으로 NFCS의 5개의 요인 각각에서 가장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유한 문항 3개를 선별하여 15개 문항의 NFCS-SF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NFCS-SF의 요인 부하량이 적절한지 재검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양호하였고, 설명변량은 28.98%이었다.

Table 1. Factor loadings for 42-item and 15-item scale (N=260)

Items	42-item	15-item
1.	.62	.62
2.	.47	
3.	.38	
4.	.53	.50
5.	.01	
6.	.51	
7.	.49	
8.	-.07	
9.	.04	
10.	.53	.55
11.	-.16	
12.	.67	.68
13.	.37	
14.	-.01	
15.	.32	
16.	-.18	
17.	.49	.49
18.	.46	.48
19.	.59	.63
20.	.25	
21.	-.07	
22.	.46	.45
23.	.10	
24.	.30	
25.	.41	.40
26.	.39	
27.	.73	.74
28.	.62	.59
29.	.48	.46
30.	.15	
31.	.40	
32.	.43	
33.	.30	
34.	.30	
35.	.41	.39
36.	.35	
37.	.21	
38.	-.02	
39.	.52	.51
40.	.04	
41.	.47	.45
42.	.23	
Eigenvalue	7.34	5.02
Explained Variance	15.73	28.98
M(SD)	3.46(.42)	3.69(.63)

2.2.2 신뢰도

NFCS의 내적 일치도는 .84였고, 문항-총점 간 상관은 .05~.55의 범위로 다양했다. 수용 가능한 문항-총점 간 상관 기준인 .30이상[10]을 충족시키지 못한 문항이 다수 포함되었다(문항 5, 8, 9, 11, 13, 14, 16, 20, 21, 23, 37, 38, 40, 42). 또한 NFCS-SF의 내적 일치도는 .85로 양호했으며, 문항-총점 간 상관 역시 .35~.67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3. 연구 2: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연구 2는 연구 1의 NFCS-SF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여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수행하였다.

3.1 연구방법

3.1.1 연구대상

전체 자료 중 연구 1의 분석에 사용하지 않은 235명의 자료(남 54, 여 178, 무응답 3)가 연구 2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0.54세(SD=2.70)였다.

3.1.2 연구도구

3.1.2.1 종결 욕구 척도

연구 1과 동일한 척도로, 연구 2에서 내적 일치도는 .84였다.

3.1.2.2 단축형 종결 욕구 척도

연구 1의 결과로 선정된 15문항의 단축형 종결 욕구 척도를 사용하였다.

3.1.2.3 단축형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김순희가 제안한 단축형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를 사용하였다[11]. 이 도구는 4점 척도로,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6이었다.

3.1.2.4 한국판 역학 연구센터 우울 척도

우울은 한국판 역학 연구센터 우울 척도로 측정하였다[12]. 이 도구는 4점 척도로,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

에서 내적 일치도는 .93이었다.

3.1.2.5 상태-특성 불안 척도

불안은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이 표준화한 상태-특성 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3]. 이 도구는 4점 척도로,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을 측정하는 각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총점이 높을수록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상태 불안 .93, 특성 불안 .83이었다.

3.1.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과 M-Plus 2.14[1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SPSS 20.0으로 참가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또한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를 산출하였고, 공준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척도들 간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단축형 15문항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M-Plus 2.14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FI($\geq .90$), TLI($\geq .90$), RMSEA($\leq .05$, 좋음; $\leq .08$, 양호함; $\geq .10$, 나쁨)와 SRMR($\leq .05$, 좋음; $\leq .08$, 양호함; $\geq .10$, 나쁨)로 확인하였다[14].

3.2 연구결과

3.2.1 신뢰도

NFCS-SF의 내적 일치도는 .84로 양호하였다. 문항-총점 간 상관의 범위는 .21~.67로, 일부 문항은 수용 가능한 기준인 .30보다 낮았다(25, 35, 41).

3.2.2 확인적 요인분석

Figure 1과 2에 제시하였듯이, NFCS와 Roets, Van Hiel[4]의 방식대로 구성한 NFCS-SF를 Webster, Kruglanski[3]이 처음 제시한 5요인 모형과 Roets, Van Hiel[4]의 1요인 모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Table 2에 제시했듯이, 대체로 NFCS보다 NFCS-SF의 적합도 지수가 더 나았고, NFCS-SF의 5요인의 적합도 지수가 1요인 보다 양호했다. 각 모델 당 CFI의 값이 0.01 보다 크면 모델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15]. 전반적으로 볼 때, NFCS-SF의 요인구조는 5요인이 적합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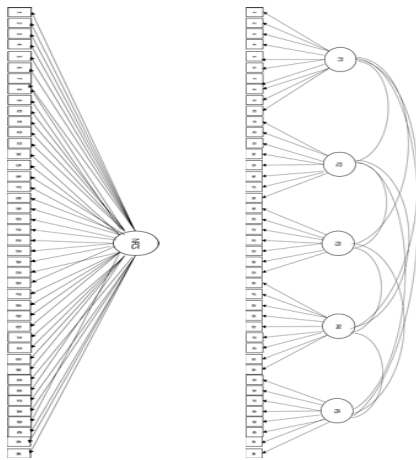


Fig. 1. Factor structures of NFCS
 Note. F1=preference for order and structure, F2=preference for predictability, F3=decisiveness, F4=discomfort with ambiguity, F5=close-minded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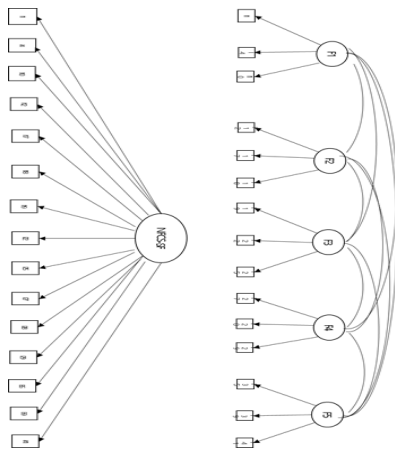


Fig. 2. Factor structures of NFCS-SF
 Note. F1=preference for order and structure, F2=preference for predictability, F3=decisiveness, F4=discomfort with ambiguity, F5=close-mindedness

Table 2.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N=235)

factor	χ^2	df	CFI	TLI	RMSEA	SRMR
NFCS-1factor	2340.534***	819	.413	.383	.089 (.085-.093)	.107
NFCS-5factor	1842.374***	809	.602	.576	.074 (.069-.078)	.106
NFCS-SF 1factor	267.087***	90	.772	.734	.092 (.079-.104)	.078
NFCS-SF 5factor	178.337***	80	.873	.834	.072 (.058-.087)	.081

*** $p < .001$

3.2.3 NFCS-SF와 관련 척도 간의 타당도 분석

단축형 종결 욕구와 종결 욕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우울,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 제시하였듯이, 단축형 종결 욕구와 종결 욕구의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r=.86, p<.01$). 또한 단축형 종결 욕구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r=.58, p<.01$), 우울($r=.16, p<.05$), 상태 불안($r=.31, p<.01$)과 특성 불안($r=.29, p<.01$) 모두 상관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for NFCS-SF, NFCS, IUS, CES-D, STAI-S & T (N=235)

	M (SD)	1	2	3	4	5	6
1. NFCS-SF	3.63 (.59)	1	.86**	.58**	.16*	.31**	.29*
2. NFCS	3.44 (.39)		1	.54**	.20**	.26**	.26**
3. Intolerance of Uncertainty	2.91 (.63)			1	.28**	.34**	.38**
4. Depression	.93 (.56)				1	.75**	.78**
5. State anxiety	2.33 (.54)					1	.82**
6. Trait anxiety	2.22 (.40)						1

* $p < .05$, ** $p < .01$

4. 결론

이 연구는 인지적 종결 욕구를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단축형 종결 욕구 척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NFCS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요인 부하량을 고려하여 각 하위 영역에서 3문항을 선정하여 15문항으로 NFCS-SF를 구성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을 살펴보면, 질서 및 구조화에 대한 선호 하위 영역에서는 구조화되고(1) 계획된(4) 삶을 좋아하고 계획 변경을 꺼려하는(10) 문항이 선택되었는데, 질서에 대한 선호보다는 구조화에 대한 선호가 주를 이루었다. 예측가능성에 대한 선호 하위 영역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이러한 상황에 빠져드는 것을 꺼려하고(12,17) 예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외식 장소를 선호하는(18) 문항이 포함되었다.

결단성에서는 의사결정에서 고심하고(19) 문제 해결 시 많은 대안이 떠올라서 혼란스러우며(22) 쇼핑을 할 때 원하는 것을 결정내리기가 어렵다(25)의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되고, 모호함으로 인한 불편감에서는 불확실한 상황(27), 타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28)와 일어난 상황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감(29)이 선택되었다. 마지막으로 폐쇄성에서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고려(35)와 나와 의견이 매우 다른 사람과의 교류 선호(39)의 역채점 문항과 다양한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비선호(41)가 포함되었다. 한편, NFCS가 문항 수가 많아 연구 활용에 효율적이지 못하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고, 이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이 다수 나타나는 것은 NFCS 문항들을 재검토하여 단축형 NFCS의 구성의 타당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Houghton, Grewal[2]와 Roets, Van Hiel[4]의 단축형 NFCS와 문항 구성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Houghton, Grewal[2]의 단축형 척도에서 결단성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과 모두 다르게 구성되었다. 이는 Roets, Van Hiel[4]의 지적대로 결단성 문항들이 종결 욕구라기보다 종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겠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NFCS-SF가 인지적 종결 욕구를 측정하는데 적절한 도구인지를 반복 검증해야 하겠다.

둘째, 연구 1과 2 모두에서 NFCS-SF의 내적 일치도는 양호한 수준이었고, 이는 NFCS와 유사하였다. NFCS의 문항-총점 간 상관을 살펴보면, 허용 가능한 수준 미만인 문항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이는 NFCS 구성 문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비해, NFCS-SF의 문항-총점 간 상관은 연구 1에서는 양호했고, 연구 2에서 일부 문항만 허용 가능 수준 미만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NFCS-SF가 인지적 종결 욕구를 평가하는데 신뢰로운 도구임을 시사한다.

셋째, NFCS-SF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요인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NFCS-SF는 질서 및 구조화에 대한 선호, 예측가능성에 대한 선호, 결단성, 모호함으로 인한 불편감, 폐쇄성의 5요인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는 Webster, Kruglanski[3]와 Houghton, Grewal[2]가 제시한 NFCS의 요인구조와 동일하다. 이에 비해, 수정본 단축형 NFCS를 개발한 Roets, Van Hiel[4]의 연구와 이 단축형 척도를 터키 표본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연구[5]에서 단일 요인 구조가 지지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들에서는 NFCS와 동일한 5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은 수행하지 않아, 단

일 요인 구조가 타당하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또한 Atak, Syes, Cok[5]의 연구에서 일부 문항의 요인 부하량과 문항-총점 간 상관이 낮아, Roets, Van Hiel[4]의 단축형 NFCS-SF가 인지적 종결 욕구를 측정하는데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인지 의문이 든다.

넷째, NFCS-SF와 NFCS의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나, NFCS-SF가 NFCS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인지적 종결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우울과 불안 척도의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로 볼 때, 인지적 종결 욕구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고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음을 시사하고,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7,8]. 인지적 종결 욕구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불확실성에 대한 불호와 관련된다. 인지적 종결 욕구가 상황적 요인인 동시에 특성 요인인 동기인데 비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우울과 불안 같은 불확실성의 파생 결과에 초점을 두는 기질적 특성이 강하다[16]. 이로 볼 때, 불확실성의 인내력 부족과 인지적 종결 욕구의 관계는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울수록 모호한 상황에 대해 빠르게 답을 내어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종결 욕구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인지적 종결 욕구가 높으면 모호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빠르게 산출하여 모호성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상황과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이나 과거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떠올린다[17]. 이러한 반추와 걱정과 같은 부정적 사고를 통제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18],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고통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피해망상이 있는 임상 집단이 정상 통제군에 비해 인지적 종결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 망상이 있는 정신증 환자와 정상 통제군을 대상으로 연구[20]에서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질서 및 구조화와 예측 가능성 선호하고 모호한 것을 더 불편하게 여겼고, 이 세 요인은 불안과 우울에 대한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하지만 결단성은 불안과 우울에 대한 부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우울이나 불안 등 임상 집단이 우울부단함이나 결단력 저하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함을 고려할 때, 결단성과 불안, 우울의 상관이 부적으로 나타난 결과 역시 그럴듯하다. 하지만 Roets, Van Hiel[4]이 지적했듯이, NFCS의 결단성 요인 문항들이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인지적 욕구 보다는 결단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겠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결단성 요인에 대한 재검토가 권장된다. 한편, 인지적 종결 욕구가 망상 형성에 관여한

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21]. 이처럼 인지적 종결 욕구가 정신건강과 관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주목은 미미하다. 따라서 인지적 종결 욕구와 다양한 정신 건강 영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자들의 폭넓은 관심이 필요하겠다.

이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성인 초기의 비임상 집단의 대학생으로 일반화의 한계가 있어,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 뿐 아니라 임상군을 대상으로 추가 타당화가 권장된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NCFS-SF의 구조의 타당성에 대한 반복 검증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종결 욕구와 우울, 불안 등 정신병리와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A. W. Kruglanski, D. M. Webster, "Motivated closing of mind: Seizing and freezing", *Psychological Review*, Vol.103, pp.263-283, 1996.
DOI: <https://doi.org/10.1037/0033-295X.103.2.263>
- [2] D. C. Houghton, R. Grewal, "Please, let's get an answer-any answer: Need for consumer cognitive closure" *Psychology & Marketing*, Vol.17, No.11, pp.911-934, 2000.
DOI: [https://doi.org/10.1002/1520-6793\(200011\)17:11<911::AID-MAR1>3.0.CO;2-4](https://doi.org/10.1002/1520-6793(200011)17:11<911::AID-MAR1>3.0.CO;2-4)
- [3] A. W. Webster, D. M. Kruglanski, "Individual differences in need for cognitive 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7, pp.261-271, 1994.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67.6.1049>
- [4] A. Roets, A. Van Hiel, "Item selection and validation of a brief, 15-item version of the Need for Closure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ol. 50, pp.90-94, 2011.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0.09.004>
- [5] H. Atak, M. Syed, F. Çok, "Examination of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Need for Closure Scale-Short Form among Turkish college students", *Archives of Neuropsychiatry*, Vol.54, No.2, pp. 175-182, 2017.
DOI: <https://doi.org/10.5152/npa.2017.12707>
- [6] N. O. Rosen, E. Ivanova, B. Knäuper, "Differentiating intolerance of uncertainty from three related but distinct constructs", *Anxiety and Stress Coping*, Vol.27, pp.55-73, 2014.
DOI: <https://doi.org/10.1080/10615806.2013.815743>
- [7] A. Roets, B. Soetens, "Need and ability to achieve closure: Relationships with symptoms of psychopath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ol.46, pp.60-65, 2010.
DOI: <https://doi.org/10.1016/j.paid.2009.09.013>
- [8] R. McKay, R. Langdon, M. Coltheart, "Need for closure, jumping to conclusions, and decisiveness in delusion-prone individual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194, No.6, pp.422-426, 2006.
DOI: <https://doi.org/10.1097/00005053-200201000-00007>
- [9] A. L. Comrey, H. B. Lee, A first course in factor analysi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2.
- [10] J. Nunnally, I. Burstein,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1994.
- [11] S. H. Kim, *The Relationship of Fear of Negative and Positive Evaluatio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26, 2010.
- [12] M. J. Cho, K. H. Kim,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y Association*, Vol.32, No.3, pp.381-399, 1993.
- [13] D. W. Hahn, C. H. Lee, K. K. Chon, "Korean adaptation of Spielberger's STAI(K-STAI)",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 pp.1-14, 1996.
- [14] L. K. Muthen, B. O. Muthen, Mplus 2.14 [Computer software]. Los Angeles, Author, 2002.
- [15] L. Hu, P. M. Bentler,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6, pp.1-55, 1999.
DOI: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16] D. Hooper, J. Coughlan, M. R. Mullen,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Guidelines for determining model fit", *Electronic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Method*, Vol.6, pp.53-60, 2008.
DOI: <https://doi.org/10.21427/D7CF7R>
- [17] M. Mikulincer, Human learned helplessness: A coping perspective. New York, Plenum, 1994.
- [18] S. Nolen-Hoeksema, "The role of rumination in depressive disorders and mixed anxiety/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109, pp.504-551, 2002.
DOI: <https://doi.org/10.1037/0021-843X.109.3.504>
- [19] R. McKay, R. Langdon, M. Coltheart, "Jumping to delusions? Paranoia, probabilistic reasoning, and need for closure", *Cognitive Neuropsychiatry*, Vol.12, No.4, pp.362-376, 2007.
DOI: <https://doi.org/10.1080/13546800701203769>
- [20] D. Freeman, P. A. Garety, E. Kuipers, S. Colbert, S. Jolley, D. Fowler, Delusions and decision-making style: Use of the Need for Closure Sca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Vol.44, No.8, pp.1147-1158, 2006.
DOI: <https://doi.org/10.1016/j.brat.2005.09.002>

- [21] S. M. Colbert, E. R. Peters, P. A. Garety, "Need for closure and anxiety in delusion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 early psycho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Vol.44, No.8, pp.1385-1396, 2006.
DOI: <https://doi.org/10.1016/j.brat.2005.06.007>

김 은 경(Eunkyung Kim)

[정회원]



- 201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
반대학원 심리학과 (심리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
리전문가
- 2016년 9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의예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불안, 해석편향